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빈 배가 물의 리듬 타고 일렁이듯 무심으로 여여하게 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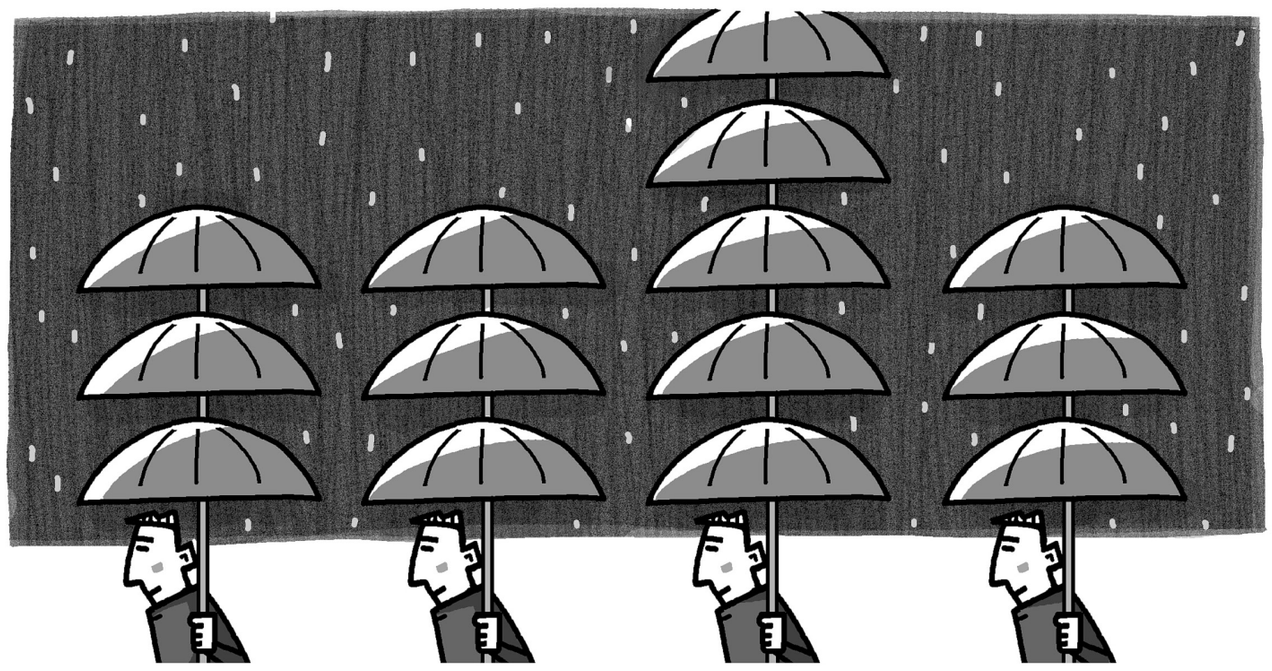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큰스님 오늘은 식물에 대한 문제, 요걸 잠깐 거론하려고 합니다. 식물들이 꽃이나 나무만 식물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일체의 반 이상 소유하고 있고 또는 나중에 대의적으로 본다면 전체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것도 전부 식물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종이 하나하나가 전부 식물이요, 이 나무 하나하나가 식물입니다. 쌀도 식물이요, 밀가루도 식물입니다. 하나서부터 열까지 모두가 식물 아닌 것이 없으리만큼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식물을 가꾸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연쇄적으로 공식하고 있다는 그 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왜 그 업에 의해서, 과보에 의해서 끄달리며 윤회에 끄달리며 가환에 끄달리며, 모든 게 그렇게 끄달리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모든 거를 둘로 본다면 이것은 끄달리게 돼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서 어떠한 걸 배척하지 않고 모두, 우리가 하다못해 쌀을 먹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고등 동물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있습니다. 바치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 안 하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있으니깐 먹으려니 하고, 또 두 번째는 식욕으로 탐을 두고 또는 착을 두고 욕심이 있고, 고정되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둘로 보지 말고, 자기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 주인공에다 놓는다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밥을 한 그릇 먹었을 때 그 쌀은, 그 식물은 나의 모습이요, 그 식물의 생은 나의 생이란 얘깁니다. 그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체를 다 가지고 논의할 때 하나도 나 아님이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어머니가 차에 치여서 옆구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아, 늑막이 들었는데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토끼를 잡아서 마늘을 넣고 고아서 먹으면 괜찮다고 하니 어떻게 불자로서 살생을 합니까?"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선정과 지혜는, 지혜는 지혜의 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들이고 내는 용, 그 자체가 무엇이냐? 선정이라 하면 우리 몸이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이 몸을 다스린다 이 소립니다. 이 둘을 한데 합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균등을 잡아서 같이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선이다 악이다 이러는 걸 떠나서 선정이다 지혜다, 이것을 몰락 균등을 잡아서 한데 놓는다면, 이 끄달리지 않는 법이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서 끄달리지 않고 스스로서 우리가 그 본점에 모든 것을 놓을 수 있는 그런 보림을 할 수 있다면 또 한 가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공부를 해 가면서 또 체험해 가면서 다시 보림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죠.

그런데 식물 그 자체가 모두 보림하고 놓는데에 끄달리지 않는다는 이치가 있습니다. 여러분같이 그렇게 끄달리고 거기에서 둘로 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무를 파서 옮기거나, 산을 올라가거나 그래도 마구 꺾죠? 둘로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나로 본다면 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물이나 식물이나 동물을 이렇게 먹을 때도 언제나 감사하게 먹되 감사한 그 마음을 놓으란 말입니다. 감사하게 놓고, 맡겨 놓고 물러서지 않고 모든 것을 똘똘 뭉쳐 놓는다면 이것이 바로 일상생활 그대로 참선이 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떠나서 부처님 법이 있다면 그것은 어긋나는 법입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똥그란 그릇에 네모난 뚜껑 덮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어디까지나 새 버리고 말죠.

그러니 우리가 한생각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무한의 능력이 근본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발견하지 못해서 무한 능력의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우리는 50% 미완성으로 살아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차원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는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9차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 무한의 능력이 본래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계발을 못해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에 식물이나 생물이나 또 낮은 동물이나 인간으로서 살아나가면서도 항상 내가 했고 너 나, 너희들, 이렇게 상대를 두기 때문에, 마음으로 그렇게 상대를 두고 욕심을 두고 또 아상을 가지고 이렇게 사니까 항상 그것이 덧붙어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산 사람이 열이라면 보이지 않는 생명들이 열입니다. 반반 이렇게 교차로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서 둘로 본다면 그거 항상 끄달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죽은 마음이나 산 마음이나 어찌 둘이겠습니까? 마음이야 둘이 아니죠. 모습이 다를지언정 어찌 둘이겠습니까? 항상 얘기하지마는 서쪽으로 지면 거기가 동쪽이 되고, 동쪽으로 뜨면 거기가 서쪽이 되고 이러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널리 본다면 우주 삼천대천세계가 그대로, 그대로 한마음으로 한 점에서 돌아가는 것을….

오늘은 여러분한테 질문을 받고자 합니다. 질문할 거 없어요?

질문자(남) 스님께서 뭐든지 어려움에 부닥치면 마음에 놓으라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놔야 되는지요.

큰스님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몸을 가지고 탄생을 했으면 그게 사대가 공한 것이거든. 그리고 또 상대, 모든 오온이 공한 거라.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내 본국의 본점에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본점에다…, 본점에서 모든 거 일체 만법이 나오니까. 내가 있음으로써 상대가 있지? 그렇지? 생활이 있지? 그것이 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라. 그래서 내가 그냥 공했으면서도 화두라, 이게 그대로.

그럼으로써 일심에서 만법이 나오고 만법은 일심으로 든다 그랬어. 그럼 어째서 하고 가는 자기가 자기를 못 믿느냐 말이야. 믿고 물러서지 않고 거기다가 맡겨 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 이것은 지금 시대의 일상생활에서 조금도, 티끌 하나 남김없이 우리는 다 공해서 나투면서 옮겨 갈 뿐이야. 염주가 돌아가지? 우리 앞뒤가 없는 염주가 항상 돌아가고 있잖아? 이 지구 자체도 그렇고 우주 자체도 그렇고 인간 살아나가는 것도 그런 거라. 항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항상 고정된 게 하나도 없고.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거 거기다 놔야지 어디다 놔? 누가 했기에 믿질 않는 거냔 말이야.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했지마는 처음에는 역시 운전수가 있으면 차가 있고 기름이 있는 거라. 이 세 가지의 이름은 다를지언정 한 몸에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거라. 그러니 그저 턱밑에다가 한데 붙여 놓고도 과거심이니 현재심이니 미래심이니 하거든. 그러니 얼마나 더뎌. 그리고 내가 공해서 이름해서 주인공이라고 했는데 거기다 또 주인공의 그 문제를 가지고 화두를 가지면 이게 문을 오히려 막는 법이라. 예전에는 순진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공부를 했지만 지금 시대에는 너무 아는 게 많아. 아는 게 많아서 문을 닫아 버려, 모두가. 그러니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면 공부할 사람 없다 이 소리야. 양면을 다 들고 다 놔라 이거야. 선과 악을 다 맡겨 놔라 이거야. 겁을 통해서 그 종 문서는 불살라야 하니까.

내가 항상 그런 말 하죠? 작년 콩씨를 올봄에 심었는데 콩나무로 화했으니까 콩씨는 없어졌지? 콩나무가 돼 버렸으니까. 내가 콩나무란 말이야, 각자. 그럼 콩나무의 콩씨는 열렸겠지, 또. 그런데 작년 콩씨를 찾고 있다 이 소리야. 얼마나 더디냐 이 소리야. 과거의 겁을 통해서 업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몽땅 짊어지고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거라. 그건 물질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체가 있는 게 아닌 게 돼서 내 마음에 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들어가 있듯이 의식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겹겹이 있다 이거야. 그런 거를 모두 나오는 대로 거기다 놓지 않으면 그 습을 뗄 수가 없고 그 습을 녹일 수가 없어. 홀연히 참 자기의 그 생수가 나올 수가 없지.

그러니깐 그것을 발견하려면, 그것을 계발하려면 거기에 놔야 되는 거지. 믿고 놔야 돼. 자기가 없는데 뭐가 있어.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도 "네가 이 자리에 있으면 네 앉은 자리에 전체, 우주 전체가, 그 자리가 도량이니라." 저기 가 앉으면 저기에 부처가 있는 거

☞ A18면으로 계속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19년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포교 – 생활 속 마음공부



일 정 2019년 5월 16일(목) ~ 18일(토)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지번) 신평동 150-8)
교 육 비 20만원
정 원 50명(선착순 마감)
문 의 031-470-3200(월요일 휴무)
웹사이트 http://edu.hansi.org

- 내면의 불성을 발견하고 마음의 힘 회복하기
- 지혜로운 소통으로 가정, 사찰, 사회에서 갈등을 해소하기
- 삶의 의미와 행복 찾기
-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5월 16일	5월 17일	5월 18일
마음공부와 치유	생활속 마음공부 : 원리와 방법1	특강 : 마음과 과학
주인공 관법 (한마음공생실천교육과정)	원리와 방법2 (둘 아닌 도리)	
	포교 및 활동사례	

교 재 건널강이 어디 있으랴(한마음출판사), 행복한 부모를 위한 마음공부(학지사/조계종 포교원 인증)
참고도서 꽃을 피우는 나무(학지사/조계종 포교원 인증) / 둥근 입으로 둥글게 말해 주인공(성균관출판부) / 공부(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교육과정 확인 및 신청은 QR코드를 스캔하세요.